

# 11

## 보고 듣고 느끼고



◆ 경험한 일의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



다음 장소 중 가 보고 싶은 곳을 생각해 봅시다.



페루 '마추픽추'



캐나다 '엘로나이프'



인도 '타지마할'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 말들의 아우슈비츠, 소금 광산

이른 아침 시간에 비엘리치카에 있는 소금 광산으로 갔다.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헝가리의 킹가 공주가 폴란드로 시집을 때 지참금으로 가져온 곳인데, 폴란드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378개의 나무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야 해요. 거기서부터 소금 광산의 관광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는 광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따로 안내하게 되어 있어요.” 가이드 아주머니가 폴란드 광부 아저씨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했다. 우리는 아저씨를 따라 지하 통로로 들어섰다.

“조심해서 내려가자.”

나는 아빠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돌고 도는 나무 계단은 아래로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았다. 석주는 함께 출발했지만 자꾸만 뒤로 처지고 있었다. 게다가 무엇 때문인지 얼굴까지 잔뜩 찡그리며 한쪽 다리로 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석주한테도 짜증 내는 모습이 있다는 게 약간 의아했지만 나는 그대로 아래를 향해 빠르게 내려갔다. 계단을 다 내려가서 계단에 얽힌 사연을 들었는데 아주 슬픈 이야기였다. 광부 아저씨가 설명하는 것을 가이드 아주머니가 옆에서 통역해 줬다.

“통로 바닥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양쪽에 파인 두 줄은 마차가 다니던 자국이에요. 그런데 그 마차를 끄는 말들이 문제였어요. 다 자란 말은 당시에 이곳까지 데리고 들어올 수 없었대요. 그래서 망아지 때 안고 들어와 이 안에서 키운 다음 마차로 소금을 날랐다고 해요. 그 망아지들은 여기에 들어온 후에는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해 실명한 채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광부들 또한 갑자기 분출되는 가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해요.”

가이드 아주머니 설명을 듣고 걸어 들어간 동굴은 그래서인지 더욱 어둡게

보였다. 게다가 그곳 통로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 역할을 해서 바람이 무척 섰다. 바람을 막기 위해 곳곳에 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문을 닫을 때 반드시 일행이 다 왔는지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일행과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이다. 지하 동굴에는 2천개가 넘는 방이 있기에 혼자 떨어져 그 안을 헤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아주 끔찍한 일이었다.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킹가 성당이였다. 세 명의 광부가 60년에 걸쳐 지었다고 하는데, 광부들이 자신의 안전과 두고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소금 광산 안에 만들었다고 했다. 벽에 있는 조각이나 천장의 커다란 등까지 모두 소금으로 되어 있었다.

“우아, 과연 세계 문화유산답네요!”

아빠가 성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성당 벽을 만진 손가락을 입에 살짝 대어 보았다. 짠맛이 진하게 느껴졌다. 그때 석주가 아빠와 그곳 계단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망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쌍하지? 그래서 여기를 ‘말들의 아우슈비츠’라고도 한대.”

석주가 기도를 마친 뒤 내게로 와서 말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찡그리던 얼굴은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다행히 동굴에서 위로 올라



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금세 지하를 벗어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다. 그제야 카메라를 가져온 생각이 나서 밖에 있는 건물의 사진을 찍었다. 여러 각도로 건물 사진을 찍다가 처음으로 석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러자 석주도 내 모습을 찍었다.

“둘이 같이 서 봐라.”

아빠가 우리를 나란히 세웠다.

“어깨동무도 해 봐.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김치!”

활짝 웃는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가 몇 장의 사진으로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 아우슈비츠: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 지방에 있는 화학 공업 도시.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의 강제 수용소가 설치되어 4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및 폴란드인이 학살된 곳이다.

## 1 「말들의 아우슈비츠, 소금 광산」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글쓴이가 여행한 곳은 어디인가요?

- 2 가이드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걸어 들어간 동굴이 더욱 어둡게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킹가 성당’에서 알게 된 것과 킹가 성당을 보고 생각하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알게 된 것	
생각하고 느낀 점	

## 3 여행, 견학, 공연 관람 등 경험했던 것을 떠올려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

4 여행했던 장소 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을 안내하는 관광 엽서를 만들어 봅시다.

POST CARD



에서

---



---



---

에게



### 배움 다지기

● 경험한 일의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썼나요?

